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서울 도선사 신도인 K씨는 매일 아침 '불교인터넷 텔레비전' 사이트를 방문, 경건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린다. 물론 K씨는 인터넷 예불 외에도 중요 정보 사이트를 방문하고, 전자우편을 확인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K씨는 하루 장세를 미리 예측하고, 장세 변동에 따른



정보

인터넷시대 막자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대중 방안을 미리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K씨가 증권가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전문 강좌 사이트를 클릭하는 지혜로 가능하다. 사이버 불교 교육에 관심을 갖자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터넷에 대한 사부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직접 운영하는 사이버 포교사들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읽고 충분히 이용자는 것이다.

현재 개설된 불교 교육사이트 중에서, 최봉수

씨의 인터넷 불교대학(buddhisweb.com)은 교

계 최초로 동영상과 강의노트를

요약해 보여주는 교육시스템으로 불자 네티즌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이제할 씨의 사이버사당

(cyberodang.co.kr)은 딱딱한 한자의 원리를 밝혀

쉽게 가르치고, 능화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의

불교무용(buddhistdancing.or.kr)은 영산재와 불

교무용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불교이

야기(galaxy.channel.net/~j8985)와 불교경전도우미

(user.chollan.net/~hgs9292)는 <반야심경> <백합

> 등의 경전과 총 427개의 진언을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어, 불자 네티즌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

까지 자주 방문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와 같이 불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곳을 단지 클릭 몇 번으로 방문한다면, 하루

리 시간만으로도 수행의 모자람을 채우기에 충분

할 것이다. 가상 공간에서 불교 공동체를 찾고 또

개발의 세계에 다가서는 사이버 불국토 유영을,

불자 네티즌이라면 한번쯤 해보시길 바란다.

오종욱 기자(gobacou@buddhania.com)

##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창립'

### 조계종 남북불교 교류-통일운동 전담기구로

본단 55년만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 맞춰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와 통일사업을 전담할 민족공동체추진본부(총재 정대 총무원장)가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했다.

교육위원장 일연, 포교위원장 정연, 총회의원 종하스님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창립식에서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민족이 새로운 화합과 평화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원하고 실천하기 위해 결성되는 단체"라며 "민족의 역사와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불자들이 모여 공동의 불교로 나서도록 하여 7천만 민족이 바라는 통일조국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통일종교 수립 △북한불교 및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조사·연

구 △남북불교교류 △통일기금 설치 △통일보살단 조직 △통일교육 및 홍보 △북한 지원 △타종단 및 통일관련단체와의 연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총재인 정대스님은 이날 본부장에 정연, 공동집행위원장에 명진(총회부의장) 양산(총무원 사회부장), 정책위원장에 학담(총회의원), 남북교류위원장에 지홍(낙산사 주지), 조사연구위원장에 일철(총무원 문화부장), 사무처장에 도락(사자암 주지) 스님을 임명했다. 또 고은(시인) 이영희(한강대 명예교수) 강만길(민화협 공동대표)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석구(동국대총장) 장명국(전 YTN 사장) 씨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창위와 남북교류위 조사연구위 등 3개 실행위원회에는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과교수, 김근식 아·태재단 책임연구원 등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대스님은 총무부장 임택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본단 반세기의 과거사만을 가지고 분별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막을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불자들의 열의를 모아 대립과 갈등, 전쟁의 위험 가득한 분단에도 불구하고 갈아넣는 정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식은 경과보고와 송석구 동국대총장과 박지인 문화관광부장관, 김상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의 축사, 창립선언문 낭독, 현관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 도난-화재방지시설 의무화

### 조계종 '방법·방화 규정' 제정 추진

조계종의 모든 사찰은 앞으로 성보문화재 도난 및 화재 방지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지)는 최근 방법·방화 보안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규정안을 만들었다. 규정안에 따르면, 교구본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당사찰, 관할사찰은 가군, 전통사찰은 나군, 일반사찰은 다군으로 분류하고, 가군의 경우 외부침입 및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무인자동경보시스템 및 장비를 1개 이상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교구본사는 방법·방화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소정의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규정안에는 또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정각별 또는 문화재에 전기식 자동감시장치와 폐쇄회로TV나 감지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호법부는 따르면 이 달중 규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협의, 시범사찰 지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모든 사찰에 방법·방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입적

### 12일 법주사서 영결식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진공당 탄성(真空堂 呑性) 대선사가 8일 오후 5시 주석차인 충북괴산 공림사 감안선원 선심당에서 입적했다. 세수 71세, 법랍 47세.

탄성스님의 영결대식은 12일 오전 11시 법주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다음 주속보>

탄성스님은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수습의 책임을 맡았으며, 소임을 마친 후에는 곧장 수행처인 공림사로 돌아가 수행과 후학지도에 전념하는 참수행자상을 보여줘 종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80년 10.27 법난 후에는 수습대책위원장, 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98년 조계종 사태 때는 당시 총무원장과 정화개혁회의회의 중재에 나섰다. 종재가 결렬되자 승려대회장을 맡아 현 종단 출범에 기



여했다. 97년 원로회의원으로 추대됐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원로회의 의장직을 맡아왔다.

탄성스님은 1930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44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이듬해 3월에 사미계를 받았다. 59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61년 수덕사에서 하안거 이후 17년간 수행했다. 평소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불교의 인연이 팔지언정 도를 깨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천과 참수행을 강조했다. <행장·어록 5면> 정성운 기자

## 종교청년 평화캠프 '다름이 아름다다'

### 26~30일...참가자 모집

'2000 종교청년 평화캠프'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우이동 원불교 도봉청소수련원과 총북제천 한주교 배론상사에서 '다름이 아름다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종교인권화회의(KCRP) 창년분과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강원도 대화문화아카데미 명예이사장의 '한국 종교간 대화의 역사와 의미' 주제의 강연과 6대 종교의식 체험 등으

로 진행된다. 또 기록영화 감독인 김동원씨 부부와 김해성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인 '다름과 차이들 속에서 살며 사랑하며' '세계화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제로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평화캠프에는 각 종교별 10명씩 참가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KCRP로 연락하면 된다. 02)736-2250, kcrp@chollan.net KCRP 창년분과는 또 오는 9월 26~30일 '밀려니움 2000 종교청년 평화축제' 참가자도 모집한다. 홈페이지 제작, 공연, 단편영화 제작, 공연, 콘서트 등의 분야이다.

정성운 기자



## 오직 예수

동국대 본관 앞에 모셔진 석가여래상동일상에 붉은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오직 예수'라고 쓴 훼손사건이 5일 발생했다.

## 동국대 석가여래상 훼손

### 이교도 소행...참회법회-대중공사 열어

36년간 동국대 교정을 지켜온 석가여래 청동입상(이하 성상)이 이교도에 의해 '붉은 십자가'로 더럽혀졌다.

5일 새벽 명진관 앞에 있는 성상 이쪽부분에 가로 50cm 세로 80cm 크기의 '붉은 십자가'와 180cm 길이의 '오직 예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이곳을 순찰하던 총무과 이병길 씨가 발견했다.

동국대는 총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긴급 교부위원회를 열어 '교정 불상 훼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석림회도 이날 12시 성상 앞에서의 '구탄 및 참회 법회'를 열고 성상 훼손에 즉각 대응했다. 또 8일 정각원에서는 동국대 학인 스님이 '건학 이념 수호를 위한 대중공사'를 마련했고, 9일에는 성상 앞에서 '전 동국인의 참회 법회'가 봉행됐다.

총부경찰서는 5일 오전 수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목격자가 없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국대에서는 92년 이후 12차례의 훼손사건이 발생했으나, 모두 범인을 잡지

못했다.

동국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진관 앞 성상과 교내 정각원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 요원을 배치했다. 특히 성상 주위에는 경비장치도 추가했다.

성상은 1984년 11월 5일 동국대 한복판에 봉안된 높이 350cm의 청동입상이다. 동국대를 찾아온 내·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사상을 전해왔다. <관련기사 3면>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nia.com)

## 조계종 '동국대 훼손 유감'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은 동국대 관공서 내 불상 훼손 사건과 관련, 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 각 종단 지도자들이 해왔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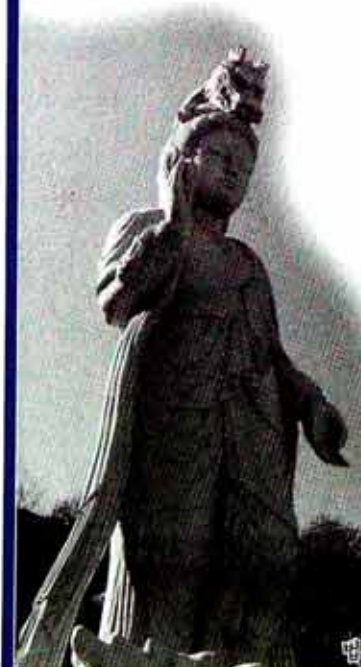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자승)는 9일 동국대 훼손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학교당국의 무대백으로 훼손이 발생했다며 책임자 문책과 교직원들의 종교 공백을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인터넷 일간지 현대불교  
**buddhanews.com**

##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의 세계를 공부하는

# 한국고승 초청 제10회 법왕사 경율론 삼장 백고좌(百高座) 대법회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법왕사에서는 부처님 출가일인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1백일간 한국 불교의 큰스님 1백인을 초청, 법문을 듣는 백고좌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두루 공부하는 「경율론 삼장의 세계」를 주제로 전국의 고승대덕들을 법사로 초청합니다. 불자들이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 대한불교 조계종 **비슬산 법왕사** 주지 實相 監掌
- 법회기간 중에는 점심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6월 20일에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합니다.
  - 법회기간중에는 영가천도 49재와 100일 기도를 동시에 봉행합니다.
  - 백고좌법회에 법사로 모시고 싶은 스님 추천을 바랍니다.
  - 백고좌법회에 동참하실 전국의 사찰이나 각 신행단체는 미리미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회 일정**

일시 : 불기 2544년 3월 13일 ~ 6월 20일(100일간)  
장소 : 법왕사 큰법당(대구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시간 : 오전 10시 30분(108배) 11시 30분부터 법문  
문의 : 법왕사 종무소 ☎ 053-766-3747, 9088)

- ◆ 동국대 교수초청 아난대법회
  - 기간 :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법왕사 큰법당(3개월)
- ◆ 불교대학 중급반 <대승기신론>강좌
  - 일시 : 4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운문사 일진스님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90분간 강의
- ◆ 모이자! 6월 20일 실내체육관 백고좌 회향법회장으로
  - 제1부(오후 1시) - 고산스님 초청 불명 및 보살계 수지 대법회
  - 제2부(오후 2시) - 제10회 백고좌법회 회향식, 법왕상 시상식
  - 제3부(오후 2시 30분) - 공연, 어울마당, 불자연예인 초청
- ◆ 법왕합창단 합창발표회
  - 일시 : 6월 9일 오후 7시
  - 장소 : 대덕문화회관
  - 지휘 : 유양환(법왕합창단 지휘자)
  - 특별출연 : 시명스님, 정륜스님, 모리터국악원 류연경 선생님의 7인